11차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 봅시다

◉ 다음 말풍선을 살펴보며,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생각해 봅시다.

"원하는 친구와 앉고 싶어요."	"그냥 키 순서대로 앉아요."	"제비뽑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."
"한 달에 한 번씩 짝을 바꾸어 앉으면 좋겠습니다."	"남자는 남자끼리, 여자는 여자끼리 앉고 싶어요."	?
"저는 눈이 나빠서 무조건 앞에 앉아야 해요."	"저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와 앉고 싶어요."	"그냥 선생님이 정해주세요."

[출처] 경기도교육청(2016).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5-6학년. P.9를 수정함.

-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?

- 이 생각 중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해 봅시다.

- 만약 나라면 어떤 의견을 내고 싶나요?

- 짝을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.

탐구하기

◉ 소영이네 교실에서는 학급 자리를 바꾸는 문제로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다음 만화를 살펴보며,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친구를 찾아봅시다.

●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친구는 누구인가요?

●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친구는 누구인가요?

●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. 바람직한 태도로서 관용, 비판적 태도, 양보와 타협이 무엇인지 읽어보고,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친구를 앞의 만화에서 찾아봅시다.

태도 1 **관용** 관용이란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입니다.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도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	저는 (이)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
태도 2 **비판적 태도** 비판적 태도는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입니다. 다른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때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	저는 (이)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
태도 3 **양보와 타협** 양보와 타협은 상대방에서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. 양보와 타협은 이러한 갈등으로 입장이 맞설 때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갈등을 푸는 것입니다.	저는 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

● 우리 학급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친구가 있으면 소개해 봅시다.

●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는 '실천'입니다. '실천'하는 태도가 중요한 까닭을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태도 4 **실천** 실천이란 함께 결정한 일을 따르거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. 서로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일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.	민주주의에서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

● 그밖에 어떠한 태도들이 더 필요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.

◉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. 다음은 갈등이 생길 때 친구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입니다. 친구들의 생각이 바람직한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.

<철민>

<동혁>

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래.
어쨌든 나 말고 다른 애들은 전부 어리석으니까.

<가희>

내가 옳았단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계획이 망가지도록 뭐든지 하고 말거야.

<동진>

지금은 말 못 해도, 나중에 설득력 있게 잘 말해봐야지.

<설향>

토의는 그만 하고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할거야.

<건호>

내 의견을 말하긴 했지만,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일게.

<수령>